아시아교육연구 20권 2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2, pp. 547-567.
https://doi.org/10.15753/aje.2019.06.20.2.547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 성역할 갈등의 매개 효과

성윤희(成允姬)*
정주리(丁珠利)**

논문 요약

유교적 가부장제가 강조되는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적 권력의 지배 대상임과 동시에 계승자인 아들에게 가부장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긴장 이론(Levant, 1996; Pleck, 1981)과 성역할 갈등 이론(O'Neil, 2008)에 기초하여 가부정작 가정환경과 남성 자녀의 우울 간의 관계를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 성역할 갈등이 매개하는지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위해 참여한 사람들은 이공계 대학의 남자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총 177명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분석결과,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성차별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차별적 인식은 성역할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성역할 갈등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남성의 우울의 관계는 성차별적 인식과 성역할 갈등이 다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O'Neil과 Nadeau(1999)의 주장처럼, 가부장적 가족환경은 성차별적 인식에 영향을 주며, 이는 남성 성역할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남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가 갖는 함의와 제한점 역시 논의되었다.

주요어 : 가부장적 가정환경, 남성 우울, 성차별적 인식, 성역할 갈등

* 제1저자, 포항공과대학교 상담센터 연구조교수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Ⅰ. 서론

가정환경은 남성다움, 여성다움과 같은 성역할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성역할이란 주관적으로 자신을 여성, 혹은 남성으로 지각하는 성정체감(Haffner, 1994)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공개적 표현으로 자신의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사회적 행동 양식을 말한다(Derogatis & Melisaratos, 1979). 특히, 성역할에 대해 구분이 뚜렷한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개인의 성역할 인식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부장적 가정환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의 의미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가부장은 가족의 우두머리인 가장(家長)을 지칭하는 말로, 부계사회에서 이러한 지위를 갖는 사람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을 가부장(家父長)이라고 하고(김경신, 박옥임, 정혜정, 1999), 가부장의 지배체제를 가부장제라고 한다(이광규, 1975). 가부장제는 크게 가족제도로서의 가부장제와 사회제도로서의 가부장제로 나뉜다(장필화, 1996). 가족제도로서 가부장제가 가족 구성원에 대해 행사하는 가부장의 일방적인 권위나 지배 체제를 의미한다면(손승영, 2011; 조윤주, 2013), 사회제도로서 가부장제는 삶과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성차별(gender inequality), 그리고 이러한 지배와 차별을 유지시키는 사회적 체계(Chesney-Lind, 2006; Gosselin, 2010; Walby, 1990)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가부장제에 대한 정의를 고려할 때,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와 자녀, 딸과 아들 간의 위계 및 권력의 불균형,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서 억압과 차별을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amilton & Sharma, 1997).

권력의 불균형, 억압의 가족규범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가족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억압과 차별의 경험이 부정적 정신건강의 지표와 관련이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Holmes, Facemire, & DaFonseca, 2016; Smith, Chambers, & Bratini, 2009).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자들은 다른 사회적 차별, 가령 인종차별이나 경제적 계층에 대한 억압이나 차별을 당할 때 가족이 중요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에 차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도 있지만, 가부장적 억압이나 차별의 경우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원들의 정신건강에 더욱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Yoon, Adams, Hogge, Bruner, Surya, & Bryant, 2015).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남녀 청소년 자녀 모두에 있어 부모폭력, 부모감독, 부모갈등, 비행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식, 2011).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부모와의 갈등과 관련이 있고, 부모와의 갈등이 다시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영향을 줌으로써 비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청소년은 가부장적 환경이 부모의 낮은 감독과 관련이 있고 이것이 비행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통해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식, 2011). 또한 원가족의 가

부장적 분위기는 성인 남성의 낮은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었고,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 2013).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인해 가부장적 가치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이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Cho, 2013),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특히,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여성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은 일부 존재하지만(김정민, 2017; 정희성, 2009),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남성 자녀의 정신건강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스타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김현준, 2013; 황연정, 2000; Gao, Li, Cai, & Chen, 2012)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간접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개인의 적응 및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여성 자녀뿐만 아니라 남성 자녀들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자녀는 같은 성별의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자기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간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Biller, 1974; Lee & Kushner, 2008). 특히 한국의 “유교적 가부장제(Confucian Patriarchy)”에서는 아버지의 권한, 남녀 역할의 구분 외에도 가족의 대를 잇는, 부권의 계승자인 아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선호가 가족 내 가부장주의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다(김병영, 정소희, 김영호, 2011; 박미해, 2010; 유은혜, 2018). 따라서 가부장적 가족환경에서는 권력 지배의 대상이지만, 장래 그 권력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아들에게는 유교적 가부장적 가족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일 수 있을 것이다. 가부장적 환경에서 자란 남성들은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를 부정적으로 경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차별적인 남녀관계를 내면화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Barry, 1980; Luddy & Tohompson, 1997). 그리고 이렇게 내면화된 성차별적 인식은, 남성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남성 성역할 갈등(gender role conflict)을 촉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남성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성차별적 인식과 성역할 갈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에서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가부장제와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성차별이란 생활 속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해지는 구별, 배제, 제한을 의미하며, 성차별적 인식이란 그러한 구별, 배제, 제한을 정당화하는 인식을 말한다(여성가족부, 2017). 여성학자들은 가부장제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가부장적 제도와 관습을 영속시키기 위해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장필화, 1996; Becker, 1999).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들은 성역할 태도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성차별적 인식 역시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Marks, Lamd와 McHale(2009)의 연구를 보면, 대다수의 가족(약 80%)에서 가족구성원들(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성역할 태도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성차별적인 태도를 가진 가정에서는 어머니, 자녀들 역시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아버지가 양성평등적 태도를 가진 가정에서는 어머니, 자녀들도 비슷한 태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좀 더 성차별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성차별적 인식은 남성들에게 남성성에 대한 경직된 관점을 갖게 함으로써 성역할 갈등(gender role conflict)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성역할에 대해 이분법적이고, 성차별적인 인식이 강한 남성일수록 자신의 남성성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심리적 갈등을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다. 성역할 갈등은 미국의 남성 심리 연구학자인 O'Neil(2008)이 제안한 개념으로 "성역할 사회화가 남성 자신 및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p. 362). O'Neil, Helms, Gable, David와 Wrightsman(1986)은 경직되고, 성차별적이며, 제약적인 성역할 사회화 때문에 남성 및 타인에 대한 제약(restrictions), 가치손상(devaluation), 침해(violation)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성역할 갈등은 전통적인 성역할, 남성성 규준을 과도하게 충족하려고 함으로써 남성 자신의 삶과 심리적 발달에 제약을 경험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갖게 하거나, 남성 자신 혹은 타인이 대해 심리적 혹은 물리적 폭력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O'Neil과 Nadeau(1999)는 남성 성역할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가부장적 사회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성차별주의(sexism)에서 찾고 있다.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여성혐오 태도, 양성평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비전통적 젠더 표현에 대한 부정적 태도(동성애 혐오)와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역시 이러한 성차별적 인식과 성역할 갈등의 연관성을 지지하고 있다(Blazina & Watkins, 2000; Mintz & Mahalik, 1996; Parrott, Adams, & Zeichner, 2002; Sinn, 1997; Wade & Brittan-Powell, 2001).

O'Neil(2008)의 성역할갈등이론(theory of gender role conflict)의 모태가 되는 성역할긴장 이론(gender role strain paradigm)에서는 엄격한 성역할 사회화가 남성에게 부정적인 영향(긴장, 갈등, 스트레스)을 미치는 방식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Levant, 1996; Pleck, 1981). 첫째는 남성 자신의 모습이 남성에 대한 성역할 기대와 다를 때 나타날 수 있는 '성역할 불일치 긴장(gender role discrepancy or incongruity strain)'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남성이 가족 부양자, 사회적 성공이라는 남성성의 기대를 미치지 못했을 때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성역할 역기능 긴장(gender role dysfunction strain)'으로 남성에 대한 성역할 기대를 충족한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가리킨다.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 남성 우월감, 감정 억압 등 남성성 규준 자체가 남성 자신이나 타인에게 역기능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셋째는 '성역할 정신적 외상 긴장(trauma strain)'으로 남성성 성역할 기대에 대한 강조가 어떤 집단에게는 특별히 해로운 효과를 낳는 경우로, 남성 동성애자나 운동선수들이 남성성 규범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경직된 성역할갈등은 남성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발달과 경험을 억압하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친밀감, 관계성과 같은 기본심리욕구의 좌절을 야기함으로써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게 된다(하문선, 김지현, 2013; O'Neil, 2008).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외 실증연구는 대체로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김지현, 최희철, 2007; 하문선, 김지현, 2013; Blazina & Watkins, 1996; Breiding, Windle, & Smith, 2008). 가령, 김지현, 최희철(2007)은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역할갈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했다. 하문선, 김지현(2013)은 초기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청소년의 높은 성역할 갈등이 우울에 영향을 줌을 발견했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는 남성 성역할갈등의 모든 요인이 가장 높은 집단이 가장 우울하며 그 다음으로 감정억제에 대한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이 우울함을 발견하였다. 종합하면 가부장적 가족환경은 남성들에게 성차별적 인식을 심어주고, 남성 성역할 갈등을 초래하여 남성의 타고난 본성, 자연스러운 경험을 제한, 제약함으로써 이들에게 우울을 초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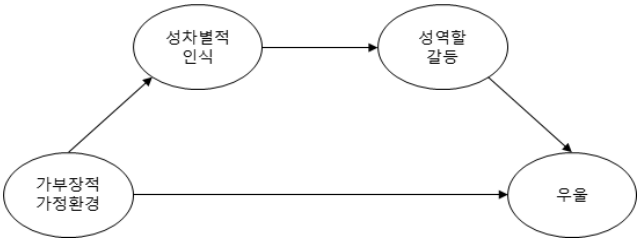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 성차별적 인식, 남성 성역할 갈등, 우울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고찰해보고,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차별적 인식과 성역할 갈등을 통해 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림 1에 제시된 연구모형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남성의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다. 또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유지, 재생산된다는 여성학자들의 주장과, 남성 성역할 갈등의 근원이 가부장적 사회와 성차별적주의라는 O'Neil(2008)의 주장에 기초하여 가부장적 환경이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성차별적 인식, 성역할갈등에 의해 다중 매개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남성 성역할 갈등의 근원이 가부장적 사회 및 그 사회 속에 존재하는 성차별주의라는 O'Neil과 Nadeau(1999)의 주장을 근거로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차별적 인식과 성역할 갈등의 이중매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의 첫 번째 대안모형으로서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갈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한 대안모형을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대안모형 1).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성차별적 인식이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남성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송리라와 이민아(2012)는 20대와 30대 남성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남성의 우울을 높이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고, Hunt, Sweeting, Keoghan과 Platt(2006)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인 자살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차별적 인식이 남성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한 대안모형을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대안모형 2).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우울을 예측할 것인가?

연구문제 2.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성차별적 인식과 성역할 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이공계 대학의 남자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교 이메일과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본 연구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였고, 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문화상품권 또는 교내 학생식당 식권이 제공되었다. 총 17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되었다. 온라인 설문 설계 시 주어진 질문에 모두 응답을 해야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수집된 자료에서 결측치는 없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5.09세(*SD*=3.65)이었고, 연령범위는 18세~35세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형제관계와 출생순위를 보고하도록 했을 때, 전체 응답자 중 97명(54.8%)이 장남이었고, 나머지 80명(45.2%)은 출생순위가 둘째거나 그 아래였다. 여자형제가 없이 남자형제만 있는 경우는 79명(44.6%)에 해당했고, 외동아들인 경우는 없었으며, 나머지 98명(55.4%)은 여자형제만 있거나, 남자형제와 여자형제 모두 있었다.

2. 측정도구

1) 가부장적 가정환경

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총 7문항을 사용하였다. 가부장적 가정환경을 평가하는 문항은 신동준(2011)이 가부장적 가

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7문항 중 4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우리 집에서는 아들을 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 집에서 좋은 것은 남자가 우선이다," "우리 부모님은 아들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우리 집에서는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시킬 때 여자일, 남자일을 구분해서 시켰다"), 1문항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우리집에서는 아들과 딸을 차별한다"는 원문항을 "우리 집에서는 남녀 차별이 존재한다"로 수정). 그 외, 이성식(2011)의 연구에서 가부장적 가정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두 문항 중 한 문항(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이든 여자(어머니)보다는 남자(아버지)를 우선으로 한다), 본 연구자들이 선행연구(김경신 외, 1999; 김병영 외, 2011)를 토대로 개발한 두 문항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집안의 우두머리이다," "우리 집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녀 모두를 교육시킬 형편이 못된다면 딸보다는 아들의 교육에 우선권을 둘 것이다"를 사용하였다. 가정 내 아들만 있을 경우, 연구 참여자들에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자 형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각 문항에 자신의 가정환경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단일요인으로 나타나 요인부하량 값을 고려하여 요인부하량 값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문항 묶기를 하여 3개의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

2) 성차별적 인식

성차별적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R-KGES) 단축형을 사용하였다(안상수, 김인숙, 김금미, 2016).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로(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매우 동의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R-KGES 단축형 척도는 가정생활영역, 교육생활영역, 사회문화영역, 직업생활영역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척도별로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정생활영역의 문항 예시는 "딸은 커서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일과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 교육생활영역 예시는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중요한 일이다," 사회문화영역 예시는 "여자는 남자보다 더 깔끔하고 깨끗해야 한다," 직업생활영역 문항 예시는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은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차별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가정생활영역은 .71, 교육생활영역은 .80, 사회문화영역 .76, 직업생활영역은 .72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3) 남성 성역할갈등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2012)가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검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1=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6=매우 일치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검사는 O'Neil et al.(1986)의 4요인(성공·권력·경쟁-예시: 다른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힘센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감정억제-예시: 나는 애정표현을 하기 힘들다, 일·가정 양립 갈등-예시: 일이나 공부 때문에 여가 시간이나 가족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남성 간 애정행동억제-예시: 다른 남성들과 너무 친밀해지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에 '가장 의무감(예시: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과 '남성우월(예시: 여성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의 2요인을 추가하여 총 6개의 하위요인, 3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이수연 외(2012)의 연구에서는 6요인이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으나 본 연구에서는 6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x^2(9)=71.478$, $p<.001$, TLI=.666, CFI=.800, SRMR=.097, RMSEA=.199. 그러나 이수연 외(2012)가 요인 수 비교를 위해 한 것처럼 O'Neil 외(1986)의 4요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가장의무감 요인을 일·가정 양립 갈등 요인으로, 남성간 애정표현 억제를 감정표현 억제 요인으로 묶었을 때 적합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x^2(2)=7.676$, $p<.05$, TLI=.919, CFI=.973, SRMR=.035, RMSEA=.127. 또한 본 연구는 O'Neil(2008)의 성역할갈등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연 외(2012)가 O'Neil et al.(1986)의 4요인 구조에 맞춰 제시한 대로 요인을 묶어 4요인 구조로 사용하였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성공·권력·경쟁은 .72, 남성 간 애정표현 억제 및 감정표현 억제 요인은 .86, 남성우울은 .81, 일·가정 양립 갈등 및 가장의무감은 .86으로 나타났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2였다.

4)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의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adloff(1977)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각 문항이 묘사하는 증상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4점 리커트 척도(1=극히 드물게(1일 이하), 2=가끔(1-2일), 3=자주(3-4일), 4=거의 대부분(5-7일))를 사용하여 물었다. CES-D는 자기보고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본다. 배성우와 신원식(2005)은 한국판 CES-D 척도들의 요인구조가 연구자마다 상이함을 주목하고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요인구조를 비교 검토한 결과, CES-D척도의 원저자인 Radloff(1977)의 요인구조의 적합도가 가장 적절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adloff(1977)의 요인구조를 따라 우울감정, 긍정적 감정, 신체행동둔화, 대인관계 4요인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우울감정의 문항 예시는 "상당히 우울했다," 긍정적 감정은 역산문항의 예시로 "비교적 잘 지냈다,"신체행동둔화 문항 예시는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대인관계 문항의 예시로 "사람들이 나를 싫어

하는 것 같았다”이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우울감정은 .86, 긍정적 감정은 .88, 신체 및 행동둔화는 .77, 대인관계는 .78로 나타났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한 지수로는 CFI, TLI, RMSEA, SRMR를 사용하였으며, CFI와 TLI는 .90이상일 때, RMSEA는 .08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홍세희, 2000), SRMR 역시 .08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Hu & Bentler, 1999).

Ⅲ. 연구 결과

1. 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연구변인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평균값은 문항 합산값의 평균이다. 상관분석 결과,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성차별적 인식(r=.300, p<.01), 남성 성역할갈등(r=.266, p<.01), 우울(r=.249, p<.01)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성차별적 인식은 남성 성역할갈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으나(r=.444, p<.01), 우울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131, p>.05). 남성 성역할갈등은 우울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r=.403, p<.01). 연구변인들의 첨도와 왜도값을 검토했을 때, 모두 절대값이 2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1〉 연구변인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1	1-1	1-2	1-3	2	2-1	2-2	2-3	2-4	3	3-1	3-2	3-3	3-4	4	4-1	4-2	4-3	4-4
1. 가부장적 가정환경																			
1-1. 가부장1	.937**																		
1-2. 가부장2	.896**	.730**																	
1-3. 가부장3	.929**	.798**	.805**																
2. 성차별적 인식	.300**	.304**	.262**	.250**															
2-1. 가정생활	.193**	.195**	.170*	.161*	.821**														
2-2. 교육생활	.335**	.346**	.320**	.245**	.843**	.635**													
2-3. 사회문화	.320**	.316**	.270**	.291**	.894**	.749**	.680**												
2-4. 직업생활	.175**	.181*	.141	.152*	.796**	.426**	.561**	.589**											
3. 남성 성역할 갈등	.266**	.275**	.197**	.249**	.444**	.296**	.348**	.430**	.400**										
3-1. 성공, 권력, 경쟁	.166*	.176*	.106	.168*	.339**	.181*	.259**	.299**	.373**	.809**									
3-2. 남성우월	.283**	.297**	.231**	.236**	.514**	.414**	.471**	.491**	.363**	.605**	.301**								
3-3. 감정표현 억제	.225**	.232**	.183**	.197**	.288**	.165*	.260**	.311**	.228**	.861**	.606**	.476**							
3-4. 일가정 양립 갈등	.189*	.190*	.126	.199**	.321**	.237**	.185*	.310**	.324**	.820**	.567**	.316**	.564**						
4. 우울	.249**	.244**	.231**	.206**	.131	.075	.118	.129	.115	.403**	.145	.305**	.398**	.401**					
4-1. 우울감정	.209**	.204**	.200**	.167*	.103	.064	.091	.106	.084	.352**	.129	.271**	.352**	.340**	.943**				
4-2. 긍정적 감정	.292**	.295**	.263**	.239**	.110	.061	.128	.099	.084	.390**	.179*	.295**	.358**	.381**	.827**	.751**			
4-3. 신체둔화	.178*	.174*	.169*	.146	.122	.067	.097	.112	.126	.391**	.141	.276**	.383**	.402**	.932**	.796**	.672**		
4-4. 대인관계	.345**	.331**	.301**	.318**	.171*	.095	.162*	.203**	.119	.239**	.009	.241**	.276**	.229**	.742**	.685**	.557**	.622**	
평균	12.16	5.44	3.38	3.34	24.32	6.02	5.15	6.00	7.15	95.28	25.14	12.99	29.33	27.83	37.80	12.23	5.29	16.24	4.04
표준편차	5.93	2.77	1.82	1.84	10.66	3.01	2.83	3.14	3.77	25.51	8.13	5.75	8.98	9.43	10.72	4.12	2.02	4.66	1.11
첨도	1.15	.92	1.26	1.32	.83	.95	1.39	.90	.59	-.25	-.06	1.31	.03	-.07	.71	.97	.88	.63	.12
왜도	.35	-.20	.71	.80	.24	.67	1.42	-.02	-.60	-.09	-.35	1.30	-.40	-.51	-.20	.28	.29	.06	-.42

*p < .05. **p < .01.

2.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먼저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측정모형은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고, $x^2(84)=179.610$, $p<.001$, TLI=.922, CFI=.938, SRMR=.076, RMSEA=.080,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559에서 .934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잠재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가부장적 환경은 성차별적 인식($r=.337$, $p<.01$), 남성 성역할갈등($r=.292$, $p<.01$), 우울($r=.262$, $p<.01$)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났으며. 성차별인식은 남성 성역할갈등($r=.480$,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 우울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r=.141$, $p>.05$). 마지막으로 남성 성역할갈등은 우울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r=.453$, $p<.01$).

〈표 2〉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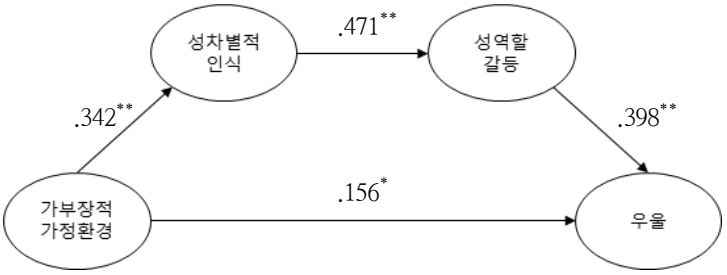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가부장적 가정환경				
가부장적 환경1	1.000	.857		
가부장적 환경2	.661	.861	.045	14.670***
가부장적 환경3	.722	.931	.045	16.031***
성차별적 인식				
가정생활	1.000	.795		
교육생활	.905	.765	.083	10.894***
사회문화	1.209	.921	.093	12.965***
직업생활	1.008	.639	.115	8.748***
남성 성역할갈등				
성공, 권력, 경쟁	1.000	.715		
남성우울	1.089	.819	.120	9.041***
감정표현억제	.477	.559	.072	6.632***
일가정 양립 갈등	.844	.700	.104	8.152***
우울				
우울감정	1.000	.934		
긍정적 감정	.421	.800	.029	14.271***
신체둔화	1.032	.852	.064	16.058***
대인관계	.210	.726	.018	12.025***

***$p < .001$.

3. 구조모형 검증

다음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을 때, 연구모형 역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x^2(86)=185.182$, $p<.001$, TLI=.921, CFI=.935, SRMR=.079, RMSEA=.081. 각 변인 간의 경로는 그림 1과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차별적 인식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고, $\beta=.342$, $p<.001$, 성차별적 인식이 남성 성역할 갈등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beta=.471$, $p<.001$, 남성 성역할 갈등이 우울로 가는 경로 역시 유의하였으며, $\beta=.398$, $p<.001$,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우울로 가는 경로($\beta=.156$, $p<.05$)도 유의하였다. 즉,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우울의 관계는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 성역할 갈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성차별적 인식과 우울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아서 연구모형에 성차별적 인식에서 우울의 경로를 추가한 대안모형 2를 검증하지 않고,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성차별적 인식의 경로를 추가한 대안모형 1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대안모형의 적합도는 $x^2(85)=181.992$, $p<.001$, TLI=.922, CFI=.937, SRMR=.079, RMSEA=.081로 양호하였다. 그러나 두 모형 비교를 위해 x^2 차이 검증을 했을 때, 차이값이 기준값인 3.84에 미치지 못해 연구모형이 더 간명성 있는 모형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그림 2] 구조모형

〈표 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가부장적 가정환경->성차별적 인식	.345	.342	.083	4.160***
성차별적 인식->성역할 갈등	1.330	.471	.259	5.138***
성역할 갈등->우울	.226	.398	.049	4.579***
가부장적 가정환경 ->우울	.252	.156	.124	2.042*

*p < .05. ***p < .01.

4.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확인을 위한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검증한 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차별적 인식을 매개로 남성 성역할 갈등에 미치는 효과는 β=.161, p<.01였고, 성차별적 인식이 남성 성역할 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효과는 β=.187, p<.01이었으며,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 성역할 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효과는 β=.064, p<.01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

효과	경로	β [BC95%신뢰구간]	p
총효과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우울 간의 관계	.220[.090~.352]	.000
직접효과	가부장적 가정환경→우울	.156[.021~.299]	.023
간접효과	가부장적 가정환경→성차별적 인식→남성 성역할 갈등	.161[.073~.285]	.000
	성차별적 인식→남성 성역할 갈등→우울	.187[.078~.313]	.001
	가부장적 가정환경→성차별적 인식→남성 성역할 갈등→우울	.064[.023~.140]	.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인 가정환경과 남성의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성차별적 인식, 성역할 갈등을 통해 매개되는지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남성 자녀의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여성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정민, 2017; 정희성, 2009) 본 연구 결과,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남성 자녀의 우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자녀의 성별과 상관없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결과는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 스타일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관된다고 여겨진다(김현준, 2013; 황연정, 2000; Gao, et al., 2012). 물론 가부장적 환경이 반드시 부정적 특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부장적 리더십이라는 표현(이재원, 이동명, 2017; 호일빙, 김현정, 이사름, 2018)에서 알 수 있듯이 가부장이 가족에 대해 갖는 책임감 등 가부장적 문화에도 긍정적 특성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한 가부장적 가족환경 내 남성과 여성의 권력의 차이,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같은 양성 불평등의 측면은 남성 자녀의 정신건강, 즉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성차별적 인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남성의 경우 높은 성차별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에서 부모가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혹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양성평등인식이 높았고(장영애, 김용미, 2010), 가족 구성원들의 성역할 태도는 서로 유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rks, Lam, & McHale, 2009).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부장적 문화 역시 세대를 거쳐서 전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부장적 문화에서 자란 남성은 이러한 문화, 가치, 인식 등을 내재화하여 성차별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셋째, 성차별적 인식은 성역할 갈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차별적 인식이 높은 남성일수록 성역할 갈등을 더 높게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역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가부장적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주의라고 주장한 O'Neil과 Nadeau(1999)의 가정을 지지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 성역할 갈등의 관련성을 보여준 선행연구(Blazina & Watkins, 2000),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남성일수록 남성 성역할 갈등이 높다는 선행연구(Mintz & Mahalik, 1996)의 결과들과 일맥상통한다고 여겨진다. 즉, '남성은 논리적이고 여성은 감정적이다'와 같이 성별에 대해서 과장된 방식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하고, 이러한 과장된 차이에 기반한 남성의 성차별적 인식은 남성들이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경험하기 보다는,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의해 삶을 제한받게 한다. 이로 인해 자신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상응하지 못하는 내재적, 외재적 경험을 할 때면 심리적 갈등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성역할 갈등은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O'Neil(2008)의 주장처럼 남성들이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지나치게 경직된 방식으로 따를 때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음을 지지한다고 여겨진다.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성역할 갈등은 우울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 최희철, 2007; 하문선, 김지현, 2013; Blazina & Watkins, 1996 Breiding, et al., 2008). 뿐만 아니라 Addis와 Mahalik(2003)는 성역할 갈등이 높은 남성이 우울에 좀 더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도움추구 행동은 낮아 이중의 위험(double jeopardy)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남성은 이로 인해 우울할 가능성은 높으나, 자신이 우울하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것 역시 자신의 성역할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고, 우울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추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남성의 우울의 관계는 성차별적 인식과 성역할 갈등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들의 성역할 태도, 성차별적 인식은 가정환경에서 공유되며(Marks et al., 2009) 가부장적 제도와 관습은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유지

되어 왔다. 그리고 성역할 긴장이론에 따르면(Levant, 1996; Pleck, 1981) 경직되고, 성차별적인 성역할 사회화는 개인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욕구를 좌절시키고, 자유로운 심리적 경험과 발달을 저해하여,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야기한다(하문선, 김지현, 2013; O'Nei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남성의 경우 성차별적 인식이 높고, 높은 성차별적 인식은 성역할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남자다움, 남성 역할에 대한 경직된 사고 및 기대와 관련하여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우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가부장적 문화, 성차별주의의 폐해와 관련해 주로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로 주목하여 왔다(고동우, 문상정, 2010; 이혜정, 2012). 하지만 O'Neil와 Nadeau(1999)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도 가부장제, 성차별주의의 피해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 실제 본 연구결과는 가부장적 문화, 성차별주의가 남성의 심리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성차별문제가 비단 여성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O'Neil과 Nadeau(1999)의 주장처럼 본 연구결과는 가부장적 가족환경, 성차별적 인식이 남성 성역할 갈등을 야기하고, 이는 남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남성의 우울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나는 심리적 경로에서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 성역할 갈등의 중요한 역할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원가족의 가부장적 환경 자체를 바꿀 수는 없더라도 본 연구결과에서 상정한 매개변인인 성차별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낮출 수 있다면 이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가부장적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가령 가부장적 문화의 부정적 측면 때문에 우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성차별적 인식 정도 및 성차별적 인식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하고, 경직된 성역할 사고로부터 유연해질 때 성별에 고정된 자신이 아닌, '나다운 자신'을 수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 수용과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적응적인 대안적인 사고나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의 가정환경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나, 가정환경이 자신의 성차별적 태도, 성역할 갈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감을 높이고, 성역할 기대에 대한 경직된 기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져 개인의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20대 초중반 이공계 공과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역할에 관련된 변인들이 교육수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남성 집단 전체에 대한 현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추후 연구는 본 연구결과가 다른 연령 집단, 교육수준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나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모두 자기보고검사를 사용하여 수집된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지각과 실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똑같은 수준의 가부장적 가정환경이라도 개인에 따라 이를 가부장적이라고 지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가부장적 가정환경이라고 개인이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성차별적 인식의 경우 개인에 따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고자 자신의 성차별적 인식을 축소하여 지각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의 가부장적 특성이나 성차별적 인식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지표를 포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고동우, 문상정(2010). 가부장적 갈등과 여성의 여가 경험. **관광학연구, 34**(4), 85-107.

김경신, 박옥임, 정혜정(1999).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13-239.

김병영, 정소희, 김영호(2011). 남아선호 가정에서 성장한 기혼여성의 가족관계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대상관계이론적 관점.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5**(2), 95-126.

김정민(2017). 20대 미혼여성의 우울증 형성과 극복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김지현, 최희철(2007). 남성 성역할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도구성과 성역할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45-160.

김현준(2013).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박미해(2010). **유교 가부장제와 가족, 가산**. 서울: 아카넷.

손승영(2011). **한국 가족과 젠더 페미니즘의 정치학과 젠더 질서의 재편성**. 파주: 집문당.

송리라, 이민아(2012). 성역할 태도와 우울: 성별연령집단별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35**(3), 35(3), 87-116.

배성우, 신원식(2005). CES-D 척도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의 요인구조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의 적용. **보건과 사회과학, 18,** 165-190.

신동준(2011). 가부장가족이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권력통제이론 변인에 대한 다양한 측정의 효과 분석. **조사연구, 12**(1), 89-117.

안상수, 김인순, 김금미(2016).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광규(1975). **한국 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이성식(2011). 가부장적 가정의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성별차이. **한국청소년연구, 62**(8), 97-117.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여성연구, 82,** 5-33.

이재원, 이동명(2017). 항공산업 조직에서 가부장적 리더십이 구성원 팀몰입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5**(6), 81-99.

이혜정(2012). 1970년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공부'경험과 가부장적 젠더규범. **교육사회학연구, 22**(4), 227-266.

여성가족부(2017). **대한민국 성평등 가이드북: 유쾌한 변화 성평등.** http://www.mogef.go.kr/ce3/namofile/files/000001/20170710102142676_V86BG29V.pdf 에서 검색.

유은혜(2018). 한국 의료제공서비스 책임주체 인식에 대한 연구: 사회신뢰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연구, 8**(2), 71-85.

조윤주(2013). 전통적 성역할 규범의 한일 비교: 가부장제적 가치와 성역할 태도.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장영애, 김용미(2010). 부모의 성역할 태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8**(2), 3-11.

장필화(1996). 아시아의 가부장제와 공사 영역 연구의 의미. **여성학 논집, 13,** 321-332.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정희성(2009). 여성 우울의 심리학적 원인 연구. **신학사상, 146,** 275-303.

하문선, 김지현(2013). 관계성과 우울을 매개로 한 초기 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공격성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4**(2), 235-259.

호일빙 , 김현정 , 이사름(2018). 가부장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순응형 팔로워십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창조와 혁신, 11**(1), 1-14.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황연정(2000). 아버지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Addis, M. E., & Mahalik, J. R. (2003). Men, masculinity, and the context of help seeking. *American Psychologist, 58*(1), 5-14.

Barry, R. J. (1980). Stereotyping of sex role in preschoolers in relation to age,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sexism. *Sex Roles, 6*(6), 795-806.

Becker, M. (1999). Patriarchy and inequality: Towards a substantive feminism. *Th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21,* 21-88.

Biller, H. B. (1974). *Paternal deprivation: Family, school, sexuality, and society.*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Blazina, C., & Watkins, C. E. (1996). Masculine gender role conflict: Effects on college men's psychological well-being, chemical substance usage, and attitudes toward help-see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461-465.

Chesney-Lind, M. (2006). Patriarchy, crime, and justice: Feminist criminology in an era of backlash. *Feminist Criminology, 1*(1), 6-26.

Cho, U. (2013). Regionalism: Its origins and substance with competition and exclusion. In H. Y. Cho, L. Surendra, & H. J. Cho (Eds),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A critical perspective.* (pp. 18-27). Abingdon: Routledge.

Derogatis, L. R., & Melisaratos, N. (1979). The DSFI: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sexual functioning.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5*(3), 244-281.

Gao, J., Li, Y., Cai, Y. & Chen, J. (2012). Perceived parenting and risk for major depression in Chinese women. *Psychological Medicine, 42*(5), 921-930.

Gosselin, D. K. (2010). *Heavy hands: An introduction to the crimes of family violence.* Boston, MA: Prentice Hall.

Haffner, D. (1994). Sexuality and aging: The family physician's role as educator. *Geriatrics, 49*(9), 26.

Hamilton, T., & Sharma, S., (1997). The violence and oppression of power relations. *Peace Review, 9*(4), 555-561.

Holmes, S. C., Facemire, V. C., & DaFonseca, A. M. (2016). Expanding criterion a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onsidering the deleterious impact of oppression. *Traumatology, 22*(4), 314-321.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155.

Hunt, K., Sweeting, H., Keoghan, M., & Platt, S. (2006). Sex, gender role orientation, gender role attitudes and suicidal thoughts in three generation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1*(8), 641-647.

Lee, S. M., & Kushner, J. (2008). Single-parent families: the role of parent's and child's gender on academic achievement. *Gender and Education. 20*(6), 607-621.

Levant, R. F. (1996). The new psychology of me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7*(3), 259-265.

Luddy, J. G., & Thompson, E. H. (1997). Masculinities and violence: A father-son comparison of gender traditionality and perceptions of heterosexual rap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62-477.

Marks, J. L., Lam, C. B. & McHale, S. M. (2009). Family patterns of gender role attitudes. *Sex Roles, 61*(3-4), 221-234.

Mintz, R., & Mahalik, J. R. (1996). Sex role ideology and gender role conflict as predictors of family roles for men. *Sex Roles, 34,* 805-821.

O'Neil, J. M. (2008). Summarizing 25 years of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using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3), 358-445.

O'Neil, J. M., Helms, B. J., Gable, R. K., David, L., & Wrightsman, L.S. (1986)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 14*(5-6), 335~350.

O'Neil, J. M., & Nadeau, R. A. (1999). Men's gender-role conflict, defense mechanism, and self-protective defensive strategies: Explaining men's violence against women from a gender-role socialization perspective. In M. Harway & J. M. O'Neil (Eds.), *What causes men's violence against women?* (pp. 89-116). Thousand Oaks, CA: Sage.

Parrott, D. J., Adams, H. E., & Zeichner, A. (2002). Homophobia: personality and attitudinal correl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7), 1269-1278.

Pleck, J. H. (1981). *The myth of masculinity.* Cambridge, MA: MIT Press.

Radloff, L. S. (199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Smith, L., Chambers, D. A., & Bratini, L. (2009). When oppression is the pathogen: The participatory development of socially just mental health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9*(2), 159-68.

Wade, J. C., & Brittan-Powell, C. (2001). Men's attitudes toward race and gender equity: The importance of masculinity ideology, gender-related traits, and reference group identity dependence.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2*(1), 42-50.

Walby, S. (1990). *Theorizing patriarchy.* Cambridge, England: Basic Blackwell.

Yoon, E., Adams, K., Hogge, I., Bruner, J. P., Surya, S., & Bryant, F. B. (20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triarchal Beliefs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2), 264-279.

* 논문접수 2019년 5월 2일 / 1차 심사 2019년 6월 7일 / 게재승인 2019년 6월 19일

* 성윤희: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에서 학사학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교육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연구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젠더, 정신건강, 다문화상담, 상담자 교육 및 슈퍼비전 등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E-mail: yoonheesung@postech.ac.kr

* 정주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사학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교육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긍정심리, 진로상담, 자기자비, 상담자 자기돌봄 등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E-mail: jjoeng@jnu.ac.kr

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Men's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xism and Men's Gender Role Conflict

Sung, Yoonhee*
Joeng, Ju-ri**

In Korean society where Confucian patriarchy is highly influential, Confucian family environment may impact sons' psychology in complex way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men's depression, and whether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two variables were mediated by sexism and men's gender role conflict based on the gender role stain paradigm (Levant, 1996; Pleck, 1981) and the theory of gender role conflict (O'Neil & Nadeau, 1999).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using an online questionnaire were 177 male undergraduates and graduate students in a colle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in order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and the mediating effects. As a result,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men's depression. That is, the relationships between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men's depression were mediated by sexism and men's gender role conflict.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could cause sexism which resulted in gender role conflict, and that gender role conflict could negatively influence men's mental health.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Men's Depression, Sexism, Gender Role Conflict

* First Author,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POSTECH Counseling Center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